



나주 복암리 고분 입구 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고분 구조물 밑을 나무 각목으로 지탱토록 해 안전성이 우려된다.



패널지붕에 햇빛이 반사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개관 앞둔 복암리고분전시관 부실공사 의혹

개관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이 바다와 천장 등의 콘크리트 균열로 고분 곳곳에 금이 가고 있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복암리 고분전시관은 국내 유일의 복합묘제인 복암리 고분군(국가사적 제 404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분군 중 가장 큰 3호분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전시관이다.

나주시는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총 97억원을 들여 다시면 복암리일원부지 4만2211㎡에 전시관과 사무동을 2011년8월 착수해 2013년2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차일피일 2년 넘게 준공과 개관을 미루다 지난해 10월 겨우 준공을 마쳤다. 공사는 K건설이 맡았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위탁운영을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박물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4월 30일 개관할 예정이다.

위탁운영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나주시는 매년 3억3000만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건물 곳곳에서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보수한 흔적도 많아 정식개관이 가능할 지, 관람객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방문한 고분전시관은 다음달 열리는 영산강 보리 문화축제에 개관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지만, 조영시설 등의

바다·천장 곳곳 균열...각목으로 떠받친 구조물 안전성 우려

패널 지붕 햇빛 반사에 주민들 '덥고 눈 부시다' 불편 호소도



복암리고분전시관 전경

하차 보수를 하느라 전등 작동 등이 마비돼 내부는 어두웠다.

플래시를 켜고 전시관 입구 바닥을 비추자 길게 균열이 생겨 보수가 흔적이 발견됐으며, 전시관 벽에서부터 고분까지 이어지는 동선 곳곳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다.

특히 바닥 균열이 고분 밑으로까지 파고 들어 고분을 여기저기서 추가 균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분 안에서는 입구 천장과 벽에서 균열이 목격됐다. 고분

내 각종 건축물도 나무 각목 등으로 지탱하고 있었으며, 고분 안에는 습기를 없애기 위해 솥을 곳곳에 배치해 놓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전시관 내부에 습기가 많아 솥을 배치했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으로, 향후 습기로부터 전시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아트그린 패널로 된 건물천장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등 소음이 심해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고분전시관이 있는 랑동마을 주민들은 전시관 건립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랑동 마을주민들은 “애초 시에서 마을에 피해가 없게 건립하기로 했는데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건물 설계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하고 건물 위치도 바꿔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시관이 탁 트인 마을 경관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아트그린 패널 지붕이 햇빛이 반사돼 눈을 뜰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시관 자체가 습기가 많고 온도 변화가 심해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기로 했다”며 “천장에 물이 새 보수는 적은 있지만 심각한 누수 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 발굴된 복암리 고분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40여기의 다양한 묘들이 한 봉분에 조성돼 있는 아파트형 고분으로 발굴도중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고분군은 본래 7기 정도 있었으나 경지정리를 하면서 3기가 없어지고 지금은 4기가 남아있다.

복암리전시관은 고분발굴 상황과 옹관묘, 횡혈식석실묘 등 다양한 묘제를 완벽하게 재현한 전시·체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시되지 않고 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은제장식, 큰칼 등이 모형으로 전시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음성권 원도심 '미술마을'로 재탄생

10억원 규모 문광부 공모사업 선정...도시재생 탄력

나주시가 10억원 규모의 '대단위 미술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돼 음성권 원도심 재생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16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옛 나주잠사 건물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원도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과 장소를 미술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폐 산업시설인 옛 나주잠사공장과 음성권 내 고살길과 텃밭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나주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공공미술과 접목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아 신청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옛 나주잠사공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마을미술사업과 결합 될 경우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예술로 승화시킨 나주만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년연속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문화재 복원활용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 등 각종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재생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강인규 시장 '2016 도전 한국인' 지방자치 부문 대상



강인규(가운데) 나주시장이 최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전한국인운동본부로부터 '2016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2016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도전한국인운동본부로부터 '2016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 지방자치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전한국인 역대 수상자로는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김문수 전경기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있다.

강 시장은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한전의 에너지밸리를 안착시키고, 미래백년의 신성장동력 마련과 나주읍성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나선 점 등을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강 시장은 또 농업·농촌 육성, 소통 행정 활성화, 클린 나주 만들기 등 행정 각 부문에 걸쳐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 나주'건설에 노력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가속도 붙는다

시-스위스 체르마트시 전기차 교류 협력·발전 양해각서 체결

나주시가 스위스 체르마트시 전기자동차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인규

시장과 크리스토프 베젠 스위스 체르마트시장은 제3회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기자동차와 미래에너지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마트에너지시티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와 미래에너지 중심의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에너지밸리의 핵심 정

책이다. 양해각서에는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활발한 교류 협력 ▲전기자동차와 미래에너지 확산을 통한 에너지 신기술 발전에 기여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발전 노력 등 크게 3개 조항이 담겨 있다. 스위스 알프스산맥 마터호른산에 있는

세계 유명 관광 명소인 체르마트시는 지난 1977년부터 전기차 육성정책을 펼쳐 일부 구급용 차량 외에는 전기차만 이용이 가능한 세계 전기자동차의 상징적인 도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한전이 들어선 나주는 에너지밸리와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부상하고 있다”며 “양시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활발한 교류 협력과 정책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주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히 단열성 시카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하유성 (주)

☎ 061-461-1800 H. 010-3631-0372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광주·전남지사